

민 정 실	음 진 천
-------------	-------------

B U D D H A N A R 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특별 초청 법회 (법문: 금산 스님)
 셋째주 일요일 11시 인등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108 대참회법회 (자비수참)
 다섯째주 일요일 11시 특별법회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범등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범구경: - 인색한 사람 천상에 오르지 못하고,
 우매한 사람 공평함 알지 못하네.
 고결한 사람 관용에서 즐거움 얻고,
 저 세상에서 기쁨 맛보네.

Misers certainly do not go to the heaven of the gods, and fools do not praise liberality; but noble men find joy in generosity, and this gives them joy in higher worlds.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5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불교와 현대사회<2>- 자녀교육 지상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과도한 자식사랑은 ‘이기적 인간’ 양산”

대한민국은 ‘교육지옥’이자 ‘교육천하’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정규학교 교육인 ‘공교육’을 제외한 한해 ‘사교육’비 규모가 무려 16조원에 이를 정도다. 지출의 대부분을 교육비에 써버린다고 할 정도로 가계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모든 것을 교육에 집중시킨다. 이른바 ‘올인교육’, 심지어 ‘묻지마’식이다. 미래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받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으로 ‘교육’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교육문제는 한국사회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중 하나다. 대통령이 나서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별 무소득이다. 수도권 집값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학군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 같은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 교육의 기능을 최고로 높이는 대안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의 열풍은 단순한 열풍을 넘어 ‘광풍’같은 것이다. IMF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다는 것은 그같은 ‘광풍’을 잘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결과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003년 기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천 999가구(자녀 3,389명)를 대상으로 작성한 ‘한국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보고서에서는 재수생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교육을 시키는 평균지출금액은 초등학생 21만 4000원, 중학생 25만 8천원, 고등학생 35만 8000원, 재수생 51만 8000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조사대상 근로자 가구들은 자녀의 사교육비와 보육시설 비용에 대해 75%정도가 매우 부담을 느끼는 것을 호소했다. 가계가 부담하는 총 사교육비는 2004년 무려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액’에서 가계가 사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7조 9600억 원에 달했다. 해외유학 및 연수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8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교육비지출은 2001년 5조 7100억 원, 2002년 6조 3800억 원, 2003년 7조 41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볼 때 ‘치열한 교육경쟁시장에서 무한경주를 하고 있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시대 교육을 마치 생사를 건 전쟁터로 만드는 것은 바로 부모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이다. <잡비유경>에서는 “탐욕은 가난을 부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몰고 온다”고 말하고 있다. 경쟁상대를 물리쳐 1등을 하려는 부모의 탐욕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이어져 자신과 사회를 속이고 파멸에 이르게 한다. <중일아함경>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탐욕은 금물임을 가르치고 있다. “탐욕이란 때맞추어오는 비처럼 그 욕심 자꾸 자라 만족할 줄 모른다.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만 많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떨어버린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부모와 자식은 돈으로 사고파는 학문을 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지혜를 통해 삶의 보물을 깨내는 중용의 도를 가르치고 있다. 무한경쟁체제로 빠져들고 있는 교육문제는 가족경제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성까지 파괴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을 교육을 통해 해소하려는 부모와 그 속에 매몰돼 오로지 승리를 위한 경주마가 되어버린 자녀들은 가출 탈선 등 우리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나...

“좋은 일과 보시에 대한 공덕이 최상의 교육”; 재산 물려달라는 라홀라 출가시켜 ‘법’ 전해

불교에서는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할 까닭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바라문 종족의 여자 바사티는 여섯명의 아들과 연속적으로 이별을 했다. 죽어버린 아들 때문에 바사티는 미치광이가 되어 부처님이 계신 암라원에 이르렀다. 부처님께서 바사티를 위해 설법을 하자 그녀는 미치광이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일곱째 아들이 죽었어도 결코 슬퍼하지 않았다. 바사티는 “비록 자손이 수천 명 있다 해도 인연의 화합으로 생긴 것이라 오랜 세월 지나면 과거가 되는 법 나와 그대로 또한 그러하오. 자손이나 많은 종족들 그 수가 비록 한량없이 많지만 그들도 제각기 태어난 곳에서 서로 서로 죽고 죽이나니 그것이 그렇게도 나쁜 줄 안다면 근심하고 괴로워할 까닭이 없네” <장아함경> 라고 말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에 대해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본다. 모든 목숨과 인연은 각기 나고 죽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올인’교육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식들에 대한 맹목적인 교육으로부터 부모가 먼저 해방될 때 교육의 문제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자식사랑에서 비롯되는 ‘묻지마’ 교육 때문이다. 자녀교육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 책임을 말씀하셨다.

“첫째 악한 일을 그만두게 한다. 살생 등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죄가 되므로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이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여 악을 그만두게 한다. 둘째 선한 일을 하게 한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공덕이 되는 보시를 하라며 좋은 일을 권한다. 셋째 학문과 예술을 하게 한다. 넷째 자식이 성장하면 잘 어울리는 신랑 신부를 선택해서 시집 장가를 보낸다. 다섯째 적당한 때에 유산을 상속한다.” <팔리어 장부경전>

불교에서는 좋은 일과 보시에 대한 공덕을 최상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야 할 일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큰 공덕을 쌓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학문과 예술을 제때 배우게 해 훌륭한 인격자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인을 만드는 것이다. 그 같은 교육은 결코 해외유학이나 사교육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재산을 아들이나 라홀라에게 법(法)을 물려줬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교육한 사람들, 실행 함께하며 의견 존중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교육방식은 교리에 따른 인연의 법칙과 수행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고 이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동량을 배출했다는 데 있다.

묘련심 보살의 교육철학

박 묘련심 보살(75세). 묘련심 보살의 교육기조는 ‘자식들은 부처님이다’였다. 공부를 비롯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자식들 스스로에게 맡겼다. 그리고 자식들을 부처님처럼 봉양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갈 때와 집으로 돌아올 때 반가운 얼굴로 맞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이들을 타일렀다. 그리고 자식들이 잠든 시간 인근사찰에 찾아가 매일 108축원기도를 했다. 그 결과 그 자식들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졸업 때까지 단 한번도 학교를 비운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학력경시대회에서 30위권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물론 따로 과외공부도 시키지 않았다. 자식들 스스로 엄마에게 과외공부는 필요없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자식들은 국내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후 지금은 정부주요부처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열혈불자들이 되어 있다. 또한 직장동료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로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묘련심 보살의 교육철학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자식들을 바로 부처님’처럼 대하는 것이었다.

정재식 과장의 경우

K 통신회사에 근무하는 정재식 과장(43세, 안양)은 요즘 매우 즐겁다. 중학교 3학년인 아들과 초등학교 5학년이 딸이 쑥쑥 변하고 아내도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까지 만해도 정과장의 집은 휴일에도 가족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교육문제로 일주일에 서너 번 씩 다투기도 했다. 자녀들의 교육에 모든 것을 건 아내와 아이들의 갈등이 폭발해 집안이 늘 폭풍전야처럼 살벌했다. 그 결과 곧잘 공부를 잘하던 중학생 아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공부는 뒷전이 되어버렸다. 아내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몸져 누웠다. 그런 정 과장에게 희망을 준 것은 지장선원 현호스님의 가르침이었다. 정 과장의 고민을 들어주던 현호스님은 공부보다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간단한 불교수행을 가르쳐주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첫째는 아침에 모든 가족이 함께 일어나 108배하기, 저녁 잠자기 30분전 함께 참선하기 그리고 자식들에게 철저한 자율권 주기 등이었다.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2005년 새해부터 시작한 자녀들과 함께하는 수행교육은 5개월만에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아들과 딸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며 아내도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정 과장과 아이들에 대한 진정된 교육은 스스로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가장 큰 성과는 다른 아이들과 경쟁을 시키기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편안한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신 부처님처럼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일체유심조(一切有心造)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데따로 무엇을 구하라”

올여름 작열하던 피약별도 입추란 절기 앞에선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더니 이젠 아침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사람을 움츠리게 만든다. 온다는 연락도 없이 친한 도반이 찾아 온 것처럼 마음속으론 가을이 온 것이 몹시 설렌다. 모든 것이 가면 오고, 오면 가는 것이라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허전한 그 무엇 때문에 아직도 어린애처럼 마당가를 서성이게 된다.

출가하기 전 동네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같고, 단지 생각이 다를 뿐이다”

“모든 것은 생각이 다 만든 것이다”

이 말을 샘물에 비유해 많이 이야기했는데, 샘물의 원천은 마음이라고 하고, 흘러나오는 물은 생각이라고 했었다. 이 물을 길 가는 목마른 나그네가 마실 수도 있고, 밤새우는 구슬피 우는 소쩍새가 마셔 소쩍소쩍 하는 소쩍새 울음소리로 나올 수도 있다.

온 산을 뛰어 헤매는 산토끼가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살기충천한 독사가 마셔 맹독의 독을 만들 수도 있다. 샘 밑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산딸기나무가 먹으면 예쁘고 맛있는 산딸기를 맺고, 산당화가 먹으면 넉넉한 분홍 꽃잎으로 피어나서 소박한 향기로 거듭날 것이다.

샘에서 솟은 물은 하나로 솟았지만 인연 따라 갖가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들의 생각도 불성의 원천인 마음에서 나와서 한없이 자비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질풍노도와 같이 무섭기도 하다. 예쁜 꽃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생각을 내기도 하고, 아름다운 산새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 즐겁기도 하다. 그래서 마음을 어디다가 쓰느냐에 따라 선, 악, 사랑도 미움도 깨달음도 우매함도 함께 할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출가에 뜻을 두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세상사는 것이 그냥 그렇고 그렇게 보였고, 항상 마음은 깊은 산중 절에 가 있었다. 청년회를 다녀서인지 인연 있는 스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절에 며칠씩 머무르면 마을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에 내려오면 또 절에 가야지 절에 가야지 하면서 마음은 콩밭에 있는 생활을 반복하기도 했다.

지금은 출가하기 전 나의 바람대로 강원도 강릉의 깊은 산골에 숨어 부처님 모시고 솔바람소리, 산새소리 들으며 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원효스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一切有心造)고, 모든 걸 마음으로 짓고 만들기”에 지금 나의 생활은 무척이나 즐겁고 행복하다. 가끔씩은 옷이 땀에 흠뻑 젖도록 운동도 하고, 경전도 보고 그리고 신심이 나면 며칠씩 좌선 삼매에 빠지기도 한다.

심생즉 종종법생(心生則 種種法生: 마음이 생하는 까닭에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심멸즉 감분불이(心滅則 龜墳不二: 마음이 멸하면 감(龜)과 분(墳)이 다르지 않네)/ 삼계유심 만법유식(三界唯心 萬法唯識: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모든 현상이 또한 식(識)에 기초한다.)/ 심외무법 호용별구(心外無法 胡用別求: 마음밖에 아무 것도 없는데 무엇을 따로 구하라)

오늘도 원효스님의 이 말씀을 가슴 속에 되새기며, 시원한 가을바람을 벗 삼아 호미를 찾아 들고 얼마 전에 심어 놓은 배추밭으로 간다.

현종스님/ 강릉 현덕사 주지

불자의 수행과 신행생활

2. 육바라밀의 실천

이러한 여러 가지 수행과 기도 외에도 행복과 해탈에 이르는 길로서 불교에서는 다양한 실천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8 만 4 천 법문이 모두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육바라밀(六波羅蜜)은 대승불교의 보살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6 섯 가지 해탈에 이르는 길을 간명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육바라밀이란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定)·반야(般若) 바라밀을 말합니다.

첫째 보시란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베풀어 괴로움에 빠진 이웃의 마음에 평화를 주며,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재물을 베풀어 기쁘게 해주며, 진리에 목말라하는 이들에게는 감로의 법문을 내립니다. 이롭게 나의 지식, 나의 재산, 나의 사랑, 나의 말, 나의 모습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나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평화를 주는 밑거름이 되지요. 자비의 실천은 이런데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둘째 지계란 계율을 지키며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올바르게 행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스러운 말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는 도덕적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욕이란 참고 감내하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치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거나 성내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극복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내지 않고 길게 용서하며 참아내는 행위는 내 마음은 물론 이 사회를 조화와 평화로운 상태로 이끌게 됩니다.

넷째 정진이란 끊임없는 불굴의 노력을 말합니다.

적당히 쉬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흐트러짐이 없이 마음과 몸을 다해서 움직이며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보면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나가는 것이며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일체의 망상을 접고 쉼없이 마음을 다하여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선정이란 정진을 통해 마음이 어느 한 대상에 집중되어 통일된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렇게 통일된 상태에서는 나도 잊어버리고 상대도 잊어버립니다. 그저 맑고 순수한 의식만이 살아 숨쉴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사태를 아무런 감각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의 실재를 정확히 응시하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여섯 번째 반야(般若)라 합니다.

이러한 반야의 지혜로 관조하여 나와 너의 분별, '나'라는 의식조차도 떠나기 때문에 보시를 함에 있어서도 무차별적 보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요 인욕행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나'라는 그림자조차 없기에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육바라밀의 근저에는 지혜 바라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수행의 목적이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이란 점에서 반야바라밀의 실천이야말로 대승불교 최상의 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정진의 힘으로 선정에 이르고, 선정의 경지에서 반야의 지혜를 얻어 일상생활

속에서 보시 및 인육, 지계를 실천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하여 나는 물론 이 사회가 맑고 깨끗해져 불국토가 실현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이요, 참 불자의 신행생활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와 수행도 육바라밀의 실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법회소식 NEWS

- 스님 만나기가 무엇보다 귀한 이곳 세인트루이스에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국에서 금산스님이 불국사를 방문하십니다. 금산스님은 제방선원에서 정진하신 훌륭한 스님으로서 신도님들 뿐만 아니라 승려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고 계신 큰 스님입니다.
10월 둘째주에는 금산 스님을 모시고 초청법회를 갖습니다. 스님은 약 일주일간 불국사 계시니 스님께 따로 용건이 있으신분은 사전에 사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일요 정기 법회에 참석하셔서 귀한 법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둘째주에 금산스님을 모시고 초청 법회를 하는 관계로 매주 둘째주에 있는 인등기도 법회는 3째주에 있습니다. 불자님들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10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 스님이 일본과 한국으로 법회 및 강석주 큰스님 기제사 (음력 10월 3일, 양력 11월 4일)에 참석하기 위해서 불국사에 한달간 안계십니다. 이 기간 동안 불국사에 연락을 하시고자 하시는 신도님들은 흥법 문정모 회장님과 보광 이진욱 총무님께 연락주시시오. 주중의 사찰관리는 안소혜 불자님과 임현철 거사님 그리고 사찰과 가까이 살고 계신 불자님들께서 관리를 하십니다. 스님이 안계시더라도 일요 정기 법회는 예정대로 있습니다. 더욱 사찰에 관심을 갖고 법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18일 (셋째주 일요일)에 맞이한 한민족의 전통 추석 명절 (한가위)때에는 많은 신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기도”와 “송편만들어 보기”등 다양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불국사의 아름다운 가든에서 텐트 밑에서 먹었던 점심 공양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이날 많은 추석 음식은 신도님들께서 정성스레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신도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 한국에서 받은 백중기도비로 서울 파고다 공원에 모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및 노숙자들에게 식사 공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파고다 공원에서 갖는 대중공양 날짜는 불국사 주지스님이 한국에 법회차 오시는 10월 말이나 11월초로 강석주 큰스님 기제사를 전후로 가집니다. 파고다 공원 식사 배식 자원 봉사를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서울에 있는 불국회나 미국 불국사로 연락 주십시오.
- 불국사에서는 뉴올리언즈 카트리나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같이 생각하는 보살행을 실천할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불자님들의 마음을 기다립니다.
-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2006년도 달력보시를 받습니다. 달력은 예년과 같이 불광출판사가 담당하고, 200부를 주문합니다.
- 10월까지 불국사에서는 지봉 불사를 합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 성불하십시오. -
- 부다나라 템플(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BUDDHANARA TEMPLE)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